2022년 11-2

KIET 경제·산업동향

2022년 11월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 1

1. 해외경제 ---------- 3

2. 실물경제 ---------- 6

3. 국내금융 ---------- 8

4. 산업별 동향 ---------- 10

5. 고 용 ---------- 12

6. 수출입 ---------- 13

〈 부 록 〉

2023년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16
[한국금융연구원(2022년 11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18

〈 요 약 〉

□ 해외경제 : 일본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3%, 유로존 0.2% 성장

○ 미국은 10월 실물지표들의 혼조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75bp) 이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

○ 일본은 9월 생산·수주 등 기업활동 지표들이 동반 감소한 가운데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내수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전기비 -0.3%를 기록하고, 유로존에서도 역내 주요국들의 소폭 성장으로 3분기 성장률이 0.2%로 하락

○ 중국은 10월 내·외수 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7개월 만에 지준율 인하를 결정

○ 달러화는 10월 미국의 고용지표 약세와 인플레 둔화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약세가 지속

○ 유가는 11월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 등에도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OPEC의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으로 하락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3%, 9월 전산업생산 -0.6%

○ 3분기 실질GDP는 투자의 대폭 확대 영향에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 급증 여파로 순수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하락(0.7% → 0.3%)

-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전월비 -1.8%)하고, 서비스업생산도 3개월 만에 감소(-0.3%)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지속(-0.6%)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 지속, 11월 중순(11.11일~11.25일) 금리 하락 및 원화 소폭 약세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기타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영향으로 감소 지속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 들어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미 국채금리 하락세와 한은의 금리 인상폭 축소(+25bp)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

○ 원/달러 환율은 11월 중순까지도 미국의 인플레 압력 완화 기대 등으로 상당폭 하락한 이후,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위안화 약세 심화 등으로 약세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8%, 서비스업생산 +5.6%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화학제품, 1차금속,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0.8% 증가

- 제조업ICT는 감소 지속, 중공업은 소폭 증가, 경공업은 증가세가 둔화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등에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5.6%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9.2%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5.3% 증가

□ 고 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5개월 만에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2021년 11월 이후 최저)

□ 수출입 : 10월 수출 -5.7%, 수입 +9.9%, 무역적자 약 67억 달러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7% 감소한 525억 달러, 수입은 9.9% 증가한 592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67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을 제외하고 선박류가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한 것을 비롯해 일반기계와 석유화학, 섬유, 가전, 컴퓨터, 반도체 등에서 전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지역별로는 對중국과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등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1. 해외경제

□ 미국 : 10월 실물지표 혼조,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

○ 10월 생산 감소와 소비 확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 속에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 및 고용지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 연준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후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가능성을 시사

- 산업생산은 제조업(전월비 0.1%)에서 소폭 증가하고, 광업(-0.4%)과 유틸리티(-1.5%)에서 동반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0.1% 감소한 반면,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1.3%)과 주유소(4.1%)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1.3% 증가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하면서 2020년 5월(43.5) 이후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38.9)가 전월과 달리 상당폭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상당 폭 하락

- 비농업 일자리 규모가 2020년 12월 이후 최소 폭의 증가세(10월 전월비 +26.1만명)를 보이고,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전월비 하락세가 지속

- 연준은 11월초 FOMC 회의에서 올 들어 4번째 자이언트 스텝(+75bp, 기준금리 3.75~4.00%)을 단행한 이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연율) (전년동기비, %)	-3.4	5.7	-1.6 (3.7)	-0.6 (1.8)	2.6 (1.8)				
산업생산	-7.0	4.9	1.2	1.3	0.5	0.7	-0.1	0.1	-0.1
(IT생산)	(3.9)	(12.1)	(0.4)	(0.3)	(1.9)	(0.6)	(-0.2)	(0.0)	(-0.6)
내구재수주	-4.5	15.6	4.0	1.9	1.9	-0.1	0.2	0.3	1.0
소매판매	0.6	19.7	3.3	2.6	0.8	-0.4	0.7	0.0	1.3
소비자물가	1.2	4.7	2.2	2.5	1.4	0.0	0.1	0.4	0.4
실업률(%)	8.1	5.4	3.8	3.6	3.6	3.5	3.7	3.5	3.7
무역수지(10억U$)	-654.0	-845.0	-282.8	-253.4	-209.4	-70.5	-65.7	-73.3	-
ISM 제조업지수[1)]	52.5	60.6	57.8	54.8	52.2	52.8	52.8	50.9	50.2
소비자신뢰지수[2)]	100.9	112.0	108.1	103.4	102.2	95.3	103.6	107.8	102.5
경기선행지수[3)]	108.0	115.6	119.1	117.9	116.2	116.5	116.4	115.8	114.9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9월 생산·수주 감소, 3분기 실질GDP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 지난 9월 소비 증가 지속에도 생산과 수주 등 기업활동 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급락(-3.8%)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 3분기 실질GDP는 소비·투자 증가세의 동반 둔화와 수입 급증(5.2%)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4.6	1.6	0.1	1.1	-0.3				
광공업생산	-10.6	5.6	0.8	-2.7	5.9	9.2	0.8	3.4	-1.7
민간기계수주	-8.6	6.1	-3.6	8.1	-1.6	0.9	5.3	-5.8	-4.6
소매판매	-3.5	2.1	-0.9	1.8	1.4	-1.3	0.7	1.3	1.5
소비자물가	0.0	-0.2	0.7	1.0	0.8	0.1	0.4	0.3	0.3
실업률(%)	2.8	2.8	2.7	2.6	2.6	2.6	2.6	2.5	2.6
무역수지(10억엔)	388	-1,669	-3,301	-4,649	-6,364	-1,404	-1,445	-2,825	-2,094
경기선행지수[1)]	88.4	101.5	100.7	101.1	99.2	100.3	98.9	101.3	97.5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0월 내·외수 동반 감소, 코로나 재확산 속에 지준율 추가 인하

○ 10월 생산과 투자 등 기업활동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되고, 소비가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 역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최근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세가 나타나면서 봉쇄 조치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中 인민은행이 7개월 만에 지준율 인하(-25bp) 단행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8.1	4.8	0.4	3.9				
산업생산	2.8	9.6	6.3	0.6	4.8	3.8	4.2	6.3	5.0
고정투자(누계기준)	2.9	4.9	9.3	6.1	5.9	5.7	5.8	5.9	5.8
소매판매	-3.9	12.5	1.6	-4.9	3.5	2.7	5.4	2.5	-0.5
소비자물가	2.5	0.9	1.1	2.2	2.7	2.7	2.5	2.8	2.1
수 출(달러화기준)	4.0	29.7	15.7	12.7	10.3	18.0	7.1	5.7	-0.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9월 실물지표 약세, 3분기 역내 실질GDP 전기비 0.2% 성장

○ 9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소폭 증가에 그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 경신을 지속. 올 3분기 역내 실질GDP 성장률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의 소폭 성장으로 전기비 0.2% 성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2	5.2	0.6	0.8	0.2				
산업생산	-7.5	7.9	0.8	0.2	0.5	1.0	-2.3	2.0	0.9
소매판매	-0.9	5.1	-0.2	-0.4	-0.7	-1.1	-0.2	0.0	0.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2.6	6.1	8.0	9.3	8.6	8.9	9.1	9.9
무역수지(10억유로)	233.8	113.1	-42.3	-95.9	-125.8	-33.2	-40.5	-47.6	-37.7
경제체감지수[1)]	88.3	110.8	111.2	104.1	96.5	103.3	98.5	97.3	93.7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지속 & 유가 70달러대로 하락

○ 달러화는 11월초 연준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75bp) 이후, 10월 美 고용지표 증가세와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확인되면서 약세 지속

○ 유가는 11월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와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 미 달러화 약세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OPEC의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 등으로 다시 70달러대로 하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25일
엔/달러	115.00	121.70	129.70	128.67	135.72	133.27	138.96	144.74	148.71	139.19
달러/유로	1.1219	1.1067	1.0545	1.0734	1.0484	1.0220	1.0054	0.9802	0.9882	1.0395
미 국채(10년만기)	1.83	2.34	2.93	2.84	3.01	2.65	3.19	3.83	4.05	3.68
WTI유	95.7	100.3	104.7	114.7	105.8	98.6	89.6	79.5	86.5	77.8
두바이유	97.0	106.0	106.0	117.1	115.0	105.8	95.6	90.1	90.0	78.4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3%, 9월 전산업생산 -0.6%

○ 3분기 실질GDP는 투자의 대폭 확대 영향에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 급증 여파로 순수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하락(0.7% → 0.3%)

- 설비투자가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전기비 5.0%)을 기록한 반면에, 소비가 전분기(2.9%)보다 낮은 증가율(1.9%)에 그치고, 순수출도 수입(5.8%)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 2분기 이후 최저치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0.7	4.1*	3.0* (0.6*)	2.9* (0.7*)	3.1**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8	3.7*	4.3* (-0.5*)	3.9* (2.9*)	5.9** (1.9**)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7.2	9.0*	-6.2* (-3.9*)	-6.6* (0.5*)	1.3** (5.0**)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5	-1.6*	-5.5* (-3.9*)	-3.7* (0.2*)	-1.5** (0.4**)	-	-	-	-
전산업생산지수	-1.1	4.9	4.0 (1.3)	4.5 (0.9)	3.9* (0.3*)	2.2 (0.8)	3.8 (-0.2)	4.8* (-0.1*)	3.1* (-0.6*)
광공업생산지수	-0.3	7.4	4.7 (3.8)	4.1 (-1.6)	1.3* (-1.5*)	1.4 (1.8)	1.5 (-1.3)	1.5* (-1.4*)	0.8* (-1.8*)
제조업생산지수	-0.2	7.6	4.7 (3.9)	4.3 (-1.7)	1.3* (-1.6*)	1.4 (1.7)	1.5 (-1.4)	1.4* (-1.2*)	0.8* (-1.8*)
서비스업생산지수	-2.0	4.4	4.1 (0.0)	5.5 (2.8)	5.9* (1.5*)	4.0 (-0.2)	4.6 (0.2)	7.4* (1.8*)	5.6* (-0.3*)
소매판매액지수	-0.2	5.9	2.8 (-1.1)	-0.2 (-1.1)	-0.1* (1.2*)	-1.5 (-1.0)	-1.9 (-0.4)	2.4* (4.4*)	-0.7* (-1.8*)
설비투자지수	5.9	9.6	-1.3 (0.2)	-2.4 (-1.2)	7.7* (10.0*)	-0.4 (4.4)	-1.9 (-3.2)	13.9* (10.7*)	12.5* (-2.4*)
건설기성액	-2.1	-6.7	-1.5 (-1.9)	2.1 (1.4)	3.8* (0.3*)	1.5 (-1.2)	1.5 (-3.1)	6.1* (3.8*)	3.9* (0.0*)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5	116.9	120.7	121.0	122.9*	121.4	122.2*	123.1*	123.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8.4	99.9	101.5	101.2	102.2*	101.3	101.8*	102.3*	102.4*
선행종합지수(2015=100)	118.9	126.4	128.0	128.8	129.6*	129.2	129.4*	129.6*	129.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0	101.2	100.0	99.6	99.3*	99.7	99.5*	99.3*	99.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전월비 -1.8%)하고, 서비스업생산도 3개월 만에 감소(-0.3%)하면서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0.6%)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에서 전월비 감소폭이 확대됨(-1.2% → -1.8%)에 따라 감소율이 더욱 낮아지고, 서비스업생산도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소매판매는 내구재(5.8%) 판매의 증가에도 비내구재(-5.0%) 및 준내구재(-3.7%) 판매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비 1.8% 감소하고, 설비투자 역시 운송장비의 증가(11.5%)에도 기계류 감소(-6.6%)의 여파로 2.4%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가 하락한 반면에, 수입액과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전월비 0.2%)를 이어가고, 선행종합지수도 장단기금리차와 코스피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기계류내수출하지수와 재고순환지표 등이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0.2%)

□ 물가 : 10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7.3% 상승

○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1.3%)와 교통(-0.5%) 등을 제외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2.0%)를 비롯해 보건(0.5%) 등 다수 부문에서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0.3% 상승(전년동월비 5.7%)

○ 10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0.1% → -7.3%)에서 전월비 큰 폭 하락한 영향에도 공산품(0.0 → 0.3%)과 서비스(-0.2% → 0.2%)에서 동반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 0.5% 상승(전년동월비 7.3%,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0.5	2.5	3.8 (1.5)	5.4 (2.1)	5.9 (1.1)	5.4 (0.7)	6.0 (0.6)	6.3 (0.5)	5.7 (-0.1)	5.6 (0.3)	5.7 (0.3)
근원물가	0.7	1.8	3.2 (1.2)	4.0 (1.4)	4.5 (0.9)	4.1 (0.7)	4.4 (0.4)	4.5 (0.1)	4.4 (0.2)	4.5 (0.3)	4.8 (0.6)
생산자물가	-0.5	6.4	8.8 (2.1)	9.9 (3.5)	8.4 (0.7)	9.9 (0.7)	10.0 (0.6)	9.2 (0.3)	8.2 (-0.4)	7.9 (0.1)	7.3* (0.5*)
근원물가	-0.1	6.0	8.0 (1.7)	7.7 (2.4)	5.8 (0.1)	7.8 (0.6)	7.5 (0.2)	6.6 (0.0)	5.6 (-0.4)	5.2 (0.0)	4.5* (0.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0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 지속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특히 대기업들의 은행 대출 활용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
(2022년 9월 +9.4조원 → 10월 +13.7조원, 대기업 +9.3조원, 중소기업 +4.4조원)

- 대기업 대출은 최근의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대출 활용이 지속된 영향으로 인해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더욱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상당폭의 증가세가 지속

○ 회사채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발행 부진 지속으로 순상환 규모가 확대
(2022년 9월 -0.6조원 → 10월 -3.2조원)

○ CP·단기사채는 우량물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로 전환
(2022년 9월 -0.4조원 → 10월 +3.1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소폭의 증가세가 지속
(2022년 9월 +0.3조원 → 10월 +0.4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0		2021		2022				22.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106.3	9.2	82.9	10.3	103.5	8.7	9.4	**13.7**	1,169.2
(대 기 업)	24.8	1.0	6.5	2.3	37.2	2.9	4.7	**9.3**	216.5
(중소기업)	81.5	8.2	76.5	8.0	66.3	5.8	4.7	**4.4**	952.6
〈개인사업자〉	41.8	4.3	33.2	2.6	20.2	2.2	1.8	**0.1**	443.1
■회사채 순발행	14.7	1.0	17.1	0.2	-5.4	0.3	-0.6	**-3.2**	..
■CP·단기사채 순발행	4.1	-1.5	6.5	-1.0	18.7	3.5	-0.4	**3.1**	51.7
■주식발행	7.1	1.2	26.0	1.1	20.6	0.3	0.3	**0.4**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10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반면에, 기타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기준 전월비 감소세가 지속
(2022년 9월 -1.3조원 → 10월 -0.6조원)

- 주택담보대출이 전세자금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된 반면에, 집단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2년 9월 +0.9조원 → 10월 +1.3조원)

-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지속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
(2022년 9월 -2.1조원 → 10월 -1.9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0		2021		2022				22.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80.2	10.6	69.1	5.2	-1.8	0.3	-1.3	**-0.6**	1,058.8
■주택담보대출	55.8	6.8	52.6	4.7	16.0	1.6	0.9	**1.3**	794.8
■기타대출	24.6	3.8	16.4	0.5	-17.9	-1.3	-2.1	**-1.9**	262.8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1월 중순(11.11일~11.25일) 금리 하락 및 원화 소폭 약세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 들어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과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미 국채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의 금리 인상폭 축소(+25bp, 11월 24일) 등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세
(11월 11일 3.834% → 11월 25일 3.644%, -0.19%p)

○ 원/달러 환율은 11월 중순까지도 미국 인플레 압력 완화 기대와 외환당국의 수급 안정책 등으로 상당폭 하락한 이후, 단기 급락에 따른 경계 심리와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위안화 약세 심화 등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약세
(11월 11일 1,318.4원 → 11월 25일 1,323.7원, +5.3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3/4	4/4	1/4	2/4	7월	8월	9월	10월	11.25일
국고채(3년)	1.59	1.80	2.66	3.55	3.01	3.69	4.19	4.19	3.64
회사채(3년,AA-)	2.05	2.42	3.34	4.36	3.97	4.66	5.28	5.58	5.38
CD(91일)	1.04	1.29	1.51	2.04	2.73	2.92	3.24	3.96	4.03
CP(91일)	1.18	1.56	1.66	2.34	2.86	3.09	3.30	4.68	5.58
원/달러	1,184.0	1,188.8	1,212.1	1,298.4	1,299.1	1,337.6	1,430.2	1,424.3	1,323.7
원/100엔	1,058.2	1,030.2	992.7	946.5	970.5	970.7	993.3	961.2	961.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0.8%, 전월비 -1.8%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30.9%)와 기타운송장비(11.9%), 기계장비(11.2%) 등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반도체(-3.5%), 화학제품(-13.7%), 1차금속(-20.7%), 전자부품(-26.4%) 등이 감소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8%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감소세(-7.2%)가 이어지고, 중공업은 전월 수준의 증가율(0.7%)을 유지한 반면에, 경공업에서는 증가세가 둔화(1.7%)

- 전월비 기준으로도 기계장비(1.1%), 기타운송장비(0.6%), 섬유제품(2.5%)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4.5%), 자동차(-3.5%), 화학제품(-1.1%), 1차금속(-15.7%)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3개월 연속 감소세(-1.8%)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5.3)는 반도체와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기계장비와 전자부품,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상동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0.7%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2%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3.4%로 전월과 달리 0.5%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전월에 이어 축소(12.1% → 10.4%,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된 반면, 출하 증가폭이 확대(1.2% → 2.3%)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5%로 전월과 달리 하락 전환

□ 서비스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5.6%,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2.7%), 운수·창고(10.2%), 숙박·음식점(21.3%), 정보통신(8.3%), 전문·과학·기술서비스(1.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4.9%) 등 다수 업종에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5.6% 증가

- 전월비로는 숙박·음식점(2.1%)과 정보통신(2.4%) 등을 제외하고는 도소매(-2.1%)를 비롯해 운수·창고(-0.5%), 전문·과학·기술서비스(-1.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9%) 등에서 감소 전환한 여파로 0.3% 감소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9.2%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도 5.3%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0	2021	2022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4	114.3	115.2	118.9	114.2	118.4	112.2	112.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3	7.4	4.7	4.1	1.3	1.5	1.5	0.8	-1.8
제조업 (원지수)	9,489.5	106.4	114.5	114.5	119.8	114.5	118.5	112.2	112.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2	7.6	4.7	4.3	1.3	1.5	1.4	0.8	-1.8
섬 유	129.8	-10.7	5.8	3.7	-1.2	-4.7	-10.0	-2.9	-0.3	2.5
화 학	845.3	-3.2	7.6	0.8	-4.2	-12.2	-9.9	-13.0	-13.7	-1.1
철 강	431.6	-6.3	5.8	2.1	-1.7	-13.2	-3.7	-8.7	-27.8	-21.6
반도체	1,423.5	22.6	29.4	29.2	27.3	4.3	17.3	-0.1	-3.5	-4.5
컴퓨터, 주변장치	30.4	-7.9	-1.0	3.1	-1.7	25.7	15.1	20.3	44.3	14.0
통신, 방송장비	122.9	-11.6	22.5	-14.0	-6.0	2.0	-3.5	-7.8	15.3	20.5
의료, 정밀, 광학	226.6	4.7	17.0	7.7	3.5	6.9	-2.4	7.3	16.9	8.3
기계, 장비	843.8	3.1	11.9	-2.9	-5.2	6.4	-2.0	10.8	11.2	1.1
자동차	927.2	-9.5	4.5	-4.4	5.1	20.7	11.1	22.3	30.9	-3.5
조 선	220.1	8.6	-16.9	-1.9	12.3	6.6	2.1	12.7	6.6	-2.0
- 중 공 업	-	0.6	8.9	5.5	4.6	1.0	1.7	0.7	0.7	-1.8
- 경 공 업	-	-3.5	1.7	1.1	2.5	2.4	1.0	4.7	1.7	-2.0
- 제조업ICT	-	11.8	20.2	21.1	16.4	-2.6	6.3	-6.2	-7.2	0.8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6.2	110.9	110.3	116.9	116.5	116.1	116.6	116.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	4.4	4.1	5.5	5.9	4.6	7.4	5.6	-0.3
도소매	211.3	-2.6	4.0	3.0	2.6	3.2	0.9	6.4	2.7	-2.1
운수및창고	90.3	-14.1	6.4	8.2	10.7	12.4	12.5	14.6	10.2	-0.5
숙박및음식점	61.6	-18.4	1.4	17.0	19.2	27.7	29.8	31.7	21.3	2.1
정보통신	79.9	1.5	5.2	6.3	8.0	6.5	4.6	6.7	8.3	2.4
금융및보험	140.9	14.0	8.5	0.1	3.7	4.4	1.3	5.2	6.9	0.9
부동산	31.8	5.5	0.7	-0.8	-1.6	-6.0	-5.9	-5.5	-6.6	-1.1
전문·과학및기술	71.0	0.0	2.7	2.2	2.1	3.9	4.4	5.7	1.9	-1.4
사업시설관리 등	47.7	-9.9	2.3	3.6	4.5	5.6	5.0	7.1	4.9	-0.9
교 육	106.0	-4.6	1.7	2.7	0.8	0.7	-1.6	2.5	1.3	-0.7
보건및사회복지	94.3	1.5	3.3	7.0	8.5	5.3	6.8	5.0	4.1	-1.0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32.6	6.9	26.7	27.9	37.1	40.1	42.3	29.2	-3.3
협회·수리및개인	32.1	-8.2	1.1	-0.5	4.8	4.3	-0.1	7.3	6.3	1.1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3.3	2.4	-3.7	-5.8	-5.3	-9.8	-2.0	-3.6	-2.3
- ICT서비스업	-	4.9	5.9	5.4	8.0	6.8	3.9	7.5	9.2	5.3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10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5개월 만에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2021년 11월 이후 최저)

-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전월보다 현저히 하락(5.3% → 4.6%)
- 농림·어업 부문에서 취업자 증가율도 큰 폭 하락(5.3% → 2.9%)한 반면에,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5개월 만에 상승 (1.8% → 2.0%)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3개월 만에 소폭 증가(-0.6% → 0.6%)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율은 2017년 4월 이후 최고치(1.3% → 1.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5.8% → 4.9%)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3% → 4.5%)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3% → 4.5%)와 교육서비스(1.5% → 1.8%)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0.3% → 0.0%)는 전월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전월의 증가세를 유지
- 실업률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하면서 계절조정 기준 2.8%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 업	26,904	27,273	27,369	28,347	28,425	28,478	28,475	28,410	28,389	28,418
전년동기비	-0.8	1.4	3.8	3.2	2.8	3.0	3.0	2.9	2.6	2.4
농림·어업	3.6	0.9	4.6	6.0	5.7	5.6	5.9	5.7	5.3	2.9
제 조 업	-1.2	-0.2	1.5	3.0	5.0	3.6	4.1	5.6	5.3	4.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	1.7	4.2	3.0	2.2	2.8	2.6	2.2	1.8	2.0
건 설 업	-0.2	3.7	3.8	2.7	-0.3	2.4	0.8	-1.1	-0.6	0.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3	-3.5	0.2	-0.4	1.0	-0.2	0.8	1.0	1.3	1.7
전기·운수·통신·금융	0.7	5.6	6.3	4.7	3.9	4.5	5.2	4.4	2.2	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0.9	3.0	5.8	4.4	2.8	3.8	3.0	2.8	2.5	2.5
실 업 률 (계절조정, %)	4.0	3.6	3.0	2.8	2.7	2.9	2.9	2.5	2.8	2.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0월 수출 5.7% 감소, 수입 9.9% 증가, 무역적자 67억 달러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7% 감소한 575억 달러, 수입은 9.9% 증가한 592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67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에서만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선박류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비롯해 일반기계와 석유화학, 섬유, 가전, 컴퓨터, 반도체 등이 전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5.7% 감소(2020년 10월 이후 처음)하고, 지역별로는 對중국과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등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시현

- 수입은 에너지 수입과 핵심 중간재(반도체) 및 정밀화학원료 등의 수입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되면서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103.3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5.5%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8.4%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24.2% 증가한 약 81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 출	5,125 (-5.5)	6,444 (25.7)	1,734 (18.4)	1,771 (13.0)	1,741 (5.8)	577 (5.3)	603 (8.6)	567 (6.6)	572 (2.3)	525 (-5.7)
수 입	4,676 (-7.1)	6,150 (31.5)	1,773 (29.8)	1,837 (23.1)	1,924 (22.6)	602 (19.3)	653 (21.7)	661 (28.1)	610 (18.2)	592 (9.9)
무역수지	449	294	-39	-66	-183	-25	-51	-94	-38	-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석유제품·자동차(부품 포함) 등만 증가, 13대 품목중 10개 품목 감소

○ **반도체** : 소비자용 IT기기 등 전방산업 및 서버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낸드 공급과잉과 D램·낸드 가격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2019년 12월(-17.8%) 이후 최대폭 감소)

○ **자동차** : 국내 브랜드 SUV·친환경차 등에 대한 견조한 수요 지속과 국내산 브랜드 인기 차종의 현지 판매 증가, 전년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에 따라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부품** :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과 중국 시장에서의 완성차 판매 부진에도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국내산 브랜드 SUV·친환경차 수요와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현지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선박류** : 2022년 수출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발주 감소와 低선가 기간에 수주한 물량인 가운데 高부가가치 LNG선 수출 감소(전년동월비 -4척) 영향으로 2개월 만에 다시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OLED 전환 가속화 영향으로 고부가가치 모바일용 OLED 및 관련 IT제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LCD 생산·수출 축소 등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국내 부품 수요와 프리미엄 제품 수출이 견조한 상황이나,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

○ **철강** : 태풍 힌남노로 인한 국내 일부 생산시설의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EU 등 주요국에서의 수출단가 약세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 **섬유** :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과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기업들의 재고 조정, 베트남 등 소싱 수요 둔화 등의 복합 영향으로 수출이 2021년 2월 이후 최대 폭의 감소율을 기록

○ **석유제품** : OPEC의 감산 합의와 미국의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 일부 정유사들의 정기보수 등의 영향에도 배럴당 90달러 이상의 고유가 속에 동절기 난방연료 공급 차질 우려에 따른 대체수요 등이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지속

○ **석유화학** : 공급과잉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수출단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

운데 국내시설 설비가동률의 하락과 중국의 자급률 제고 등으로 인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이 지속

○ **일반기계** : 북미·중남미 등지에서의 건설·설비투자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아세안 지역으로의 건설·공작기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가전** : 블랙 프라이데이 등 성수기 프로모션에도 가전제품의 교체수요 소진과 전년도 수요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여파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

○ **컴퓨터** :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투자수요 위축에 따른 SSD 수요의 동반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13.1	24.2	-0.4	6.8	31.2	-2.7	25.2	35.8	34.3	28.4
자동차부품	-17.3	22.2	3.9	-0.7	7.7	-3.8	2.1	13.9	8.6	3.1
선박류	-2.0	16.4	-45.3	-6.7	6.3	-35.9	28.8	-26.3	14.9	-2.6
일반기계	-8.9	4.6	11.5	0.3	0.2	-8.9	0.8	1.6	-1.9	-3.4
철 강	-14.5	36.9	38.1	17.2	-5.1	5.4	4.7	2.5	-21.1	-20.7
석유화학	-16.4	54.8	27.6	7.0	-9.6	-0.7	-2.1	-11.5	-15.2	-25.5
석유제품	-40.6	57.7	91.2	90.8	78.5	84.9	77.4	115.5	47.6	7.7
섬 유	-13.3	14.0	14.4	-1.9	-5.8	-9.2	-9.9	-1.0	-5.6	-19.1
가 전	0.7	24.0	13.3	0.0	-13.9	-15.6	-22.2	-9.6	-8.2	-22.3
무선통신기기	-6.4	45.9	-1.1	-3.7	-14.9	-3.9	-16.9	-21.0	-7.7	-5.5
컴퓨터	57.2	24.7	42.3	30.0	-26.8	10.0	-27.0	-30.1	-23.7	-37.1
반도체	5.6	29.0	29.0	13.6	-3.9	10.7	2.1	-7.8	-5.6	-17.4
디스플레이	-12.2	18.9	30.5	4.7	-10.0	-5.9	-2.7	-5.7	-19.9	-7.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2023년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2022년 11월)

□ 세계경제 여건

○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2년 3.2%에서 2023년에는 2.7%로 둔화될 전망

- 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② 중국의 부동산 부문 부진 심화 ③ 감염병 충격에 의한 잠재GDP 축소 ④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등 하방 위험이 동시에 현실화되는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는 1.1%까지 하락할 가능성

○ 글로벌 인플레율은 2022년 8.8%에서 2023년 6.5%로 상당 폭 하락 전망

- 국제유가는 2022년 연평균 98.2달러에서 2023년 85.5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나, 전쟁 상황 심화나 OPEC의 추가 감산 등으로 상방 위험이 큰 편

□ 국내 거시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긴축 통화·재정정책과 함께 일상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모멘텀의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이후 수출 회복 등으로 하반기 반등을 예상

○ **(민간소비)**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및 고용 둔화, 자산가격 하락, 소비심리 둔화, 부채상환부담 증가 등 여건 악화 영향으로 연간 2%대 증가율로 하락

○ **(설비투자)** 반도체 부문의 투자를 제외하고, 高금리·원자재 가격과 생산설비 부품의 공급 부족, 수출 침체 등의 우려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진

○ **(건설투자)**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비용 상승분이 건설단가에 일부 반영되면서 실질 건설투자는 증가 기대

○ **(수출입)** 전세계 교역량 침체와 IT품목 수요 약화 등은 우리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서비스 교역은 여행제한 완화 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이 기대

○ **(고용여건)**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지표들은 다소 위축 우려

○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급측 물가 압력으로 상반기까지 4%대 수준이 예상되나, 하반기 高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와 공급 압력 완화 등으로 2%대로 하락

○ **(금리)** 2023년 초에 정점 도달 이후, 연말 하락이 예상되나, 불확실성은 높은 편

○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상품수출 부진,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액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과 비슷할 전망

○ **(원/달러)**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와 ECB의 긴축 전환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나, 연평균은 기저효과로 2022년보다 상승

〈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원)

	2021	2022			2023		
		上	下	연간	上	下	연간
GDP	4.1	3.0	2.3	**2.6**	1.4	1.9	**1.7**
민간소비	3.7	4.1	4.9	**4.5**	2.7	1.5	**2.1**
설비투자	9.0	-6.4	0.7	**-2.9**	-3.3	-2.8	**-3.0**
건설투자	-1.6	-4.5	-1.2	**-2.8**	2.7	1.4	**2.0**
총수출	10.8	6.0	1.0	**3.4**	-0.6	2.6	**1.0**
총수입	10.1	3.4	3.8	**3.6**	1.8	1.6	**1.7**

	2022			2023		
	上	下	연간	上	下	연간
고용률[2]	61.6	62.7	**62.1**	61.4	62.2	**61.8**
CPI상승률	4.6	5.8	**5.2**	4.4	2.7	**3.5**
금리[3]	2.7	3.8	**3.2**	4.1	3.8	**4.0**
경상수지	248	64	**312**	18	307	**326**
환율[4]	1,234	1,378	**1,305**	1,390	1,330	**1,360**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KIF).

주 1) 2022년 하반기 이후는 KIF 전망치, 2) 원계열 기준, 3) 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 4) 원/달러 환율.

□ 2023년 대내외 고려사항

○ **(美 금리인상)** 기준금리 상단이 2023년 말 기준 5%까지 높아질 전망이나, 미국의 인플레 안정화 지연 가능성은 2023년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하방 위험

○ **(러-우 전쟁상황 악화)** 천연가스 공급 차질은 EU지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천연가스 수입처 다변화와 석탄 사용량 증가로 대응시 인플레 압력 가중

○ **(지정학적 리스크)** 2024년 1월 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대만과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상호 간의 경제제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속될 우려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 중국의 소비와 성장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은 글로벌 성장의 상방 요인이나,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효과는 제한적

○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금융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속 작용 우려

□ 종합 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경제는 2022년 2.6%, 2023년 1.7%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성장 부진의 골이 깊지 않아 잠재성장률 수준(2%)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 **(통화·재정정책)** 대외 불확실성 축소와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정책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미래여건 변화에의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우리 경제의 체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

- **(금융정책)** 신용경색과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충분한 대응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실·우량부문을 구분하여 금융불안에의 대응체계 강화

○ 중장기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수급, 관련 부처의 협업체계를 통한 공급망 안정,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산업정책을 강화할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1.28)	(11.29)	(11.30)	(12.1)	(12.2)
	10월 소매판매(잠) 10월 무역수지(수) 10월 실 업 률 11월 경제체감지수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0월 산업생산(잠) 11월 소비자물가(예) 22.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0월 산업활동동향	10월 실 업 률 11월 ISM 제조업지수 10월 개인소비 11월 수출입통계 22.3분기 실질GDP (잠 정 치)	11월 고용보고서 11월 소비자물가
(12.5)	(12.6)	(12.7)	(12.8)	(12.9)
10월 소매판매 11월 ISM 서비스업지수	10월 무역수지	11월 수출입통계 10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22.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1월 소비자물가
(12.12)	(12.13)	(12.14)	(12.15)	(12.16)
	11월 생산자물가 연준 FOMC(~12.14일)	10월 기계수주 10월 산업생산(수) 10월 산업생산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정투자 11월 무역수지(잠) 10월 소매판매(수) ECB 통화정책회의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11월 소비자물가(수) 10월 수출입통계
(12.19)	(12.20)	(12.21)	(12.22)	(12.23)
BOJ 통화정책회의			10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22.3분기 실질GDP (확 정 치) 11월 경기선행지수 11월 생산자물가	11월 소비자물가 11월 내구재수주(잠) 11월 개인소비